

집중호우 대비·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조봉업 행정부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도 유관부서·14개 시군 비상근무·안전조치 철저·신속한 응급복구 등 당부

전북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도 유관부서와 14개 시군에 집중호우 대비와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는 16일 오전 6시 30분에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지난 8일부터 내리고 있는 호우로 인해 수도권 등 중부지역에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도내에는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전대비 및 선제적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선행 강우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고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산

사태 취약지역 및 급경사지의 붕괴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마을방송, 재난문자(CBS)를 활용하여 충분히 홍보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붕괴 위험 징후 발견 시 선제적으로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휴가철 관광객, 아열대이 몰릴 수 있는 산간·계곡, 아열대 캠핑장 낚시터 등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예찰 강화 및 대피 계도로 인명피해 예방도 강조했다.

아울러 도심지 침수에 대비해 지하차도, 둔치 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등은 강우 시간대를 고려하여 선제적으

로 차단하고, 공사장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로 토사유출 및 빗물 범람 방지도 철저히 기하도록 했다.

한편 전북도는 16일 오전 3시 55분부로 도내 6개 시군(전주, 김제, 완주, 진안, 무주, 부안)에 호우경보, 8개 시군(군산, 익산, 정읍, 남원, 장수, 임실, 순창, 고창)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여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16일 오전 8시 기준 도내 평균 강수량은 53.0mm로 완주군이 122.5mm, 전주에 112.3mm가 내렸으며, 기상청은 16일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이 30~100mm(많은곳 150mm 이상)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는 16일 오전 6시 현재 익산 세월고 2개소, 전주 마전교 등 하상도로 5개소, 전주, 남원, 장수 둔치주차장 3개소 및 여객선 4개 항로를 통제하고 있으며, 11건의 피해(주택 등 건물침수 6개소, 도로 침수 1개소, 차량침수 1대, 수목전도 3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도민들께서는 하천·산간 등 위험지역 출입과 외출을 자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 및 산간 계곡 등의 아열대객들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하는 등 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청년사회서비스업단 운영

청년층 맞춤형 운동서비스 제공·선착순 150명 모집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라북도청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2개소를 운영해, 전라북도 내 만18~39세 청년 중 인바디 측정 결과 과체중 이상이면 누구나 운동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월 2만4,000원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3개월간 생활체육지도사, 축구지도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들에게 맞춤형 운동 처방과 식단 관리 등의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이며, 각 기관당 모집계획 인원은 선착순 150명으로 모집인원 신청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각 기관에 방문,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063-212-9261), 아이드림운동발달연구소(☎063-465-177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사)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과 아이드림운동발달연구소가 전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로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신체·정신건강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도-군산시-기업, 상생형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맞손'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업 지원사업 통해 일자리 창출·전기차 클러스터 안착...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 다짐

전북도와 군산시는 16일 명신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4개사와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업 지원사업'으로 도출되는 기술성과의 공동 활용을 주골자로 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16일 명신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4개사와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업 지원사업'으로 도출되는 기술성과의 공동 활용을 주골자로 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참여기업 간 공동으로 생산, 활용, 연구개발, 인력양성, 마케팅까지 이어지는 군산형 일자리의 가치사슬 협력모델이 직접 사례로서 확실히 입증되고 있다.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 협업 지원사업'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과 연관 자동차 기업들이 토로한 애로사항을 집중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2억5,000만원을 투입해 참여기업 등 8개 기업에게 전후방 기업과 협업, 제품 고급화 기술개발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기술개발 성과를 공동 활용 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주)명신 등 4개 참여기업은 전기차 기술의 역동적 변화에 대처하고, ICT 융복합 인적·물적 상호보완과 연계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협약 실천사항으로는 우선 기술성과에 대한 공동 활용과 전기

차에 장착되는 커넥터, 케이블 및 전력 분배장치 등 전기전자 부품에 대한 규격화와 공동활용을 통해 부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이 있다.

또한 본 사업의 주관기관인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사업선정

및 조정, 자문, 기술지원 등 문제해결에 필요한 일체를 지원한다.

운동목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중견·중소기업의 수평적 협업으로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기술을 확보하고 부품 생태계를 공동활용해 전기차산업 경쟁력을 확

보해 나가겠다"면서, "산업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산학연관 협력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클러스터 안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군산=김관문 기자

도, 을지연습 준비 보고 회의 개최

22~25일·3년만에 진행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16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2년 을지연습 준비 보고 회의를 열어 시군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시군 부단체장과 연습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를 감안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올해 을지연습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된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도내 95개 기관 8,6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

다.

특히,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 직제편성 훈련,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테러 등 피해복구 대응 및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통해 총무계열과 각종 매뉴얼의 실효성 검증에 중점을 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도,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 점검

무주군 농촌인력 지원 현장 방문

전북도 유효연 농업정책과장은 16일 무주군 농촌인력 지원 현장을 방문해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농가를 방문해 인력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효연 과장은 농업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필요 농가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하는 무주농협을 방문해 "올해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등으로 인력지원 실적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대폭 증가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9년도 최초 도입 이래 최대 규모(806명, 8월말 기준)로 운영되는 등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소규모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우수 사례로 손꼽혀 도내 타 시군에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서 외국인 인력을 공급받는 농가를 방문해 인력 수급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전북도는 선제적으로 인력수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도 및 14개 시군에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2022년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2학기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긴장해소·면접스피치·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부속대학과 평생교육원
 - 전주배인복지관
 - 한스스피치·공현희의 전북외강
 - 전북의제30주년 및 기관, 단지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나눔, MBC TV, JT, LBN 출연 및 강연자
 - 스포츠 사면네스트 · 송정리서사 · 심리상담사
 - 세시 "65세까지 제이유니케이션", "나쁜 배운, 보.보."
 - "나의 지도하루"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제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미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8월 29일까지
- 개강: 9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강료: 15만원
- 문의: 010-8448-2570
- 전담교수: 문정태(미술지도사, 치매인지능력회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